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강원훈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화순군, 경관 작물을 축제 · 농촌관광 연계

3억 3천만원 들여 경관보전직불제 257ha 추진

화순군은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지역축제와 농촌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나섰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불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등과 연계함으로써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물론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도 기대된다.

군은 3억 3,200만원을 들여 257ha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관보전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다. 준양면을 비롯해 이양면·도곡면·도안면·북면·몽면 등 5개 면 255농가에서 헤어리베치(경관) 이탈리아타이그라스 보리(준경관) 작

물을 재배한다. 헤어리베치는 76ha, 이탈리아타이그라스 보리는 181ha로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이, 경관보전직불금으로 ha당 15만이 각각 지급된다.

경관보전직불금은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집단 단지를 조성 등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구별 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서 지급하는 마을경관보전활동 등이 있다.

군은 지난해 말 경관지구별 면적 배정에 이어 각 마을 경관보전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활동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국립농산물관리위원회에서 이행점검을 마쳤다.

경관작물 개화면적을 보면 준양면이 10개 단지에 1,076,194㎡로 가장 많고, 도곡면이 3개 단지에 538,527㎡ 등의 순이다.

경관보전직불금은 농가에게 지난 17일 지불했고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증빙서류 확인 뒤 올해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관보전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보다 지원금이 많은데다 조사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 농가에서 선호한다"며 "앞으로 지역 축제와 농촌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조충훈 순천시장, 2017 올해의 축제리더상 수상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도시재생부문' 최고 리더 인정



조충훈 순천시장이 20일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가 주관한 '2017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올해의 축제리더상 (도시재생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한 원도심에 새로운 도심형 축제인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을 개발하여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해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관광객들에게는 흥미와 볼거리를 제공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순천시는 이 축제를 통해 원도심에 색다른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올해 페스티벌에 37만명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113여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올리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타 지자체에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축제협회(IFEA)에서 매년 열리는 이벤트 및 축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 프로그램이다.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는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국내 대표적 축제 또는 유망한 축제를 선정해 축제운영 분야 및 올해의 축제인에게 상을 수여했다.

조충훈 시장은 "순천은 생태와 문화를 융·복합하는 사계절 대표축제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스테판 킹 세계축제협회 회장, 스티브 체드윅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장, 싱가포르 축제전문가 지미왕, 뉴질랜드 콘서트 전문가 사라루이스, 정강환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장 등 세계적인 축제 권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시상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백운산휴양림에서 그림책버스와 함께 여름휴가 즐겨요”

광양시, 건전한 휴가문화 조성에 앞장



광양시 '그림책버스 작은도서관'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백운산휴양림을 찾아가고 있다.

광양시립도서관에서는 2010년부터 백운산 휴양림에 휴가를 즐기러 온 이용객들의 건전한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숲 속의 도서관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추억을 제공하고자 '그림책

버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백운산 휴양림을 찾은 이용객들은 냉방 시설이 지원되는 그림책버스 안에서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다.

또 당일 반납을 원칙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연락처만 있으면 1인당 1권의 도서 대출이 가능하며, 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림책버스에서는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관 이용 방법 등 홍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휴양림 매점 앞 주차장에서 운영되는 '그림책버스 작은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그림책버스 냉방시설 운영을 위해 11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도서훼손 방지를 위해 기상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강영화 도서관지원팀장은 "백운산 휴양림 이용객들이 자연 속에서 휴가도 즐기고 독서도 하며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며 시립도서관 이용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큰 인기

재산조회 절차 간소화로 해마다 신청자 크게 늘어

순천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80건(3000 필지) 제공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860건(1720 필지) 신청을 받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 전산망을 통해 상속자에게 소유토지를 알려주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이 증가한 이유는 실제로 잃어버린 재산을 찾은 후손들의 사례가 많아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있고, 지난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신고 접수 때 재산조

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신분증과 제적등본 등을 지참하여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상 땅 찾기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행정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후손들이 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 개최

추가경정예산안·조합규정 개정안 등 심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제9회 조합회의 임시회(의장 서일용 도의원)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양경제청의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

정예산안, 조합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도 세종

산단 공급용수도 건설, 청사 방화셔터 공사, 노후 정보통신 장비교체 등 시급한 경비를 편성했다.

조합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용역수정 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규정' 등 10건을 개정하였다.

전남동부청세무부장=김승호 기자

함평군, 노인 대상 우울척도검사 실시

함평군보건소는 최근 60세 이상 노인 7426명을 대상으로 우울척도검사(S-GDS)를 실시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층의 자살자 수가 OECD 중 1위에 오를 만큼 심각한 수준이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울증이다.

군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등 38명을 투입해 2월부터 6월까지 1주일간 기분을 평가하는 설문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울증이 우려되는 노인 190명을 선별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일반 건강검진, 생체기능기 건강검진, 병유아 건강검진, 임 검진,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건강검진율 증가율 42%p 감소,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18%p 감소